

12개의 욕망 코드, '지도'로 읽는 세계사

'욕망하는 지도' 제리 브로턴 지음



제목부터 눈길을 끈다. '욕망하는 지도'. '불온한' 제목과 달리 책은 지도 자체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지도는 단지 매개의 도구로 다뤄질 뿐, 전체적인 맥락은 시대와 시대에 조정이 맞춰져 있다.

달리 말하면 책은 지도 뒤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한다. 왜 특정 시대에 특정 지도가 탄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추적한다.

영국 런던 퀸메리대학교 역사학 교수인 제리 브로턴이 쓴 '욕망하는 지도'는 지도를 통해 인류 세계관을 조망한다.

사실, 지도를 만들려는 욕구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다. 지극히 단순한 질문이지만 만약 지도가 없었다면 인간은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길을 잃는다'가 표면적인 답이다.

그보다 오늘날처럼 정보를 공간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획득하지 못했 것이다. 자신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는 노력 또한 없었을 터다. 이른바 '인지적 관계대응', 즉 나와 타자와의 관계에서 공간과 관련한 정보를 처리하고 상기는 행위의 실존은 인간을 '우물안 개구리'로 전락시켰을 것이다.

책은 12개의 코드를 통해 당시의 사회상을 면밀하게 들여다본다. 과학, 교류, 신앙, 제국, 발전, 경계, 관용, 돈, 국가, 지정학, 권력, 정보. 모두 12개의 코드는 당시의 지도를 낳게 한 욕망이라는 기제임을 보여준다.

저자는 이 코드를 매개로 기원전 700년 바빌로니아의 점토판 세계지도부터 디지털 지도가 초래할 미래까지를 넘나들며 변화를 통찰한다. 또한 독자들로 유럽과 아메리카, 이슬람과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지도가 탄생한 역사의 공간으로 초대한다.

중간 중간 피타고라스의 이론과 중력이론, 동양의 개천설과 혼천설 등 각종 이론도 펼쳐진다. 데카르트와 뉴턴 등 역사 속 인물들이 지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소상히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수많은 사료들이 광대한 지식의 그늘에 엮여지는 과정을 조망하게 된다. 여기에 시대별로 소개되는 지도 제작 원리는 독자가 얻을 수 있는 또다른 보너스다.

저자가 풀어놓는 광활한 '지도문화사'를 개괄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결

론에 이른다. "지도는 항상 그것이 나타내려는 실체를 조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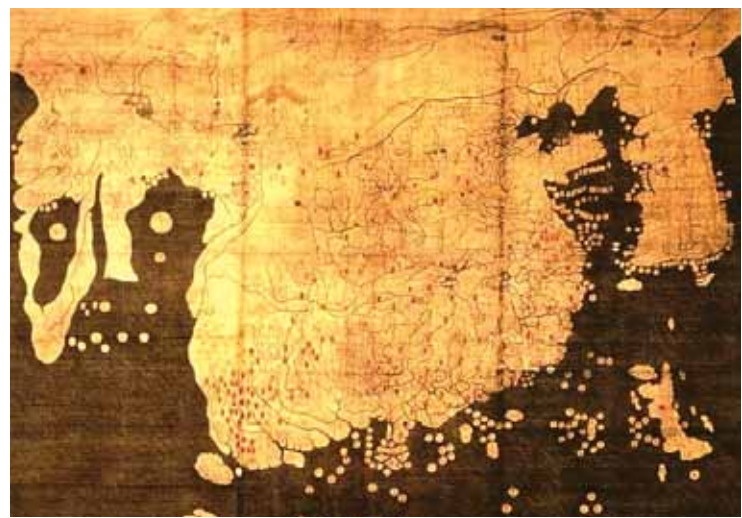
이 말은 디지털 지도 시대에 접어들어 우리의 가까운 장래를 가능하게도 한다. 긍정과 부정 양면이 있다는 얘기다.

거대 기업이 지도와 관련된 엄청난 정보를 독점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현실이다. 지도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정치적 의도로 악용되는 안 된다는 의미다. 기술의 진보가 사생활 침해, 나아가 인류를 공멸로 이끌 수도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경계다.

세계는 늘 변화하고 지도 역시 마찬가지다. 작금의 인류는 가상공간에 지도를 만드는 시대에 이르렀다. 인터넷지도 덕분에 더 이상 길을 잃을 염려도 없다.

"이 책은 세계를 바꾼 지도에 관한 이야기라 아니다. 그리스 지도부터 구글어스에 이르기까지, 무언가를 의미 있게 바꾸는 것은 지도의 본질이 아니다. 지도는 논쟁과 제안을 제시하면서, 대상을 규정하고 재창조하고 형상화하고 중재한다. 그리고 그 목적 달성에 변함없이 실패한다... 그러나 그 지도들이 한결같이 증언하는 사실은 우리 세계의 역사를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 세계 안에 있는 공간이 어떤 식으로 옮겨졌는지 탐색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공간에는 역사가 있다." <알에이치코리아·3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1470년. 전 세계와 유럽·조선을 그린 동아시아 최초의 지도 '홍일강리역대국지도'.

나에게 맞는 공부법이 좋은 공부법

'공부 처방전'

하승준 지음



명히 정하라고 조언한다. "다른 사람들도 다 잘 올라가니까, 또 올라갔으니까 너도 올라가라"가 아닌 무엇보다 자신이 산에 올라가고 싶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법이다. 여기에는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닌 자신에게 맞으면 좋은 공부방법이고, 맞지 않으면 나쁜 방법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뉴스투데이·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생활 속 유용한 물건들의 탄생비화

'포크는 왜...'

헨리 페트로스키 지음



재까지 다양한 기원, 수많은 창조적 발명가들의 일화로 흥미진진하게 풀어냈다. 한 개의 갈퀴를 가진 나이프를 가진 나이프

유용한 물건에는 어떤 탄생 비화가 숨겨져 있을까, 사물의 디자인을 분석하고 물건들의 탄생과 진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고찰한 헨리 페트로스키의 '포크는 왜 네 갈퀴를 달게 되었나'가 재출간 됐다.

1995년 처음 한국에 소개된 이 책은 우리가 소유한 물건들의 탄생과 진화의 과정을 뜨거운 학문적 열정과 체계적인 고찰로 탐색한 디자인공학의 명저다. 작지만 위대한 의미가 담긴 인공물의 역사를 선사시대부터 현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신간

▲종교 상상하기=현대 종교연구에서 엘리 아데 이후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조너선 Z. 스미스의 저서. 종교를 상상하는 일을 통해 종교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며 종교에 대한 기존의 종교적·학문적 권위를 벗어나 새로운 인식의 틀을 제공한다. 명칭만 주체, 빈틈없는 논리 전개, 세련된 서술 형식으로 종교를 탐구, 광범위한 분야에 통찰력과 창의성을 던져주며 '종교학하기'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한다. <청년사·2만원>



▲해저 보물선에 숨겨진 놀라운 세계사=국내 최초로 소개되는 수중고고학을 통해 바라본 세계사. 역사상 유명한 해저 보물선들을 차례로 살펴봄으로써 대항해 시대를 중심으로 한 유럽사, 중국과 한국, 일본, 베트남 중심의 역사를 다룬 아시아의 역사를 차례로 만나볼 수 있다. <공명·1만3000원>



▲농업의 대전격=농업정책 전문가가 그리는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 청사진. 33년 간 농림공직자로서, 또 2년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근무한 저자가 우리 농업과 농촌, 농민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언론 기고문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저자는 학교 교실과 복도, 아파트 거실과 베란다 등에서 가꿀 수 있는 농작물이야말로 도시민이 함께하는 새로운 농업이고 도시 농업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리뷰·1만6000원>



▲좌파로 살다=세계 최고의 좌파 지식인들이 집결해 있는 좌파 저널 '뉴레프트리뷰'가 창간 이후부터 다뤄왔던 좌파의 주요 인물들 가운데 16인을 엄선해 담았다. 20세기 초반 활동한 투카치, 코르수 같은 인물부터 시작해 2000년대 이후에도 왕성하게 활동한 아리기, 하비, 앙후이 등까지 지난 100년의 시간을 아우른다. 각각 다른 시대와 다른 지역에서 분투하고 성찰했던 좌파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며 정치적이고 철학적이고 실존적인 고민들을 들려준다. <사계절·3만5000원>



▲방과후 학교가 불안하다=대학에서 방과후 아동지도사를 강의하는 저자가 방과후 학교의 실상을 다룬 책. 공교육 안에서 이뤄진다는 믿음으로 아이들을 보내는 방과후 학교가, 어떻게 학원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들을 망가뜨리는지 이 책을 통해 생생히 들려준다. 공교육도 사교육도 아닌 방과후 학교에 대한 실상을 밝힌다. <사과나무·1만3000원>

▲고전으로 읽는 자본주의=우리 시대의 고전으로 보는 자본주의의 역사. 이 책에서 다른 수많은 고전들은 자본주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금융자본이 세계를 지배하는 현대 자본주의까지의 장면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땅에서 쫓겨나는 농민들을 보며, 로빈슨 크루소를 통해 자영 농민인 요맨들이 어떻게 자신의 땅을 지켜나가는지를 전한다. <다시봄·1만6000원>



불·물·공기·흙... 자연상태의 재료가 요리

'요리를 욕망하다'

마이클 폴란 지음



요리의 미덕과 가치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 나왔다. 미국의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마이클 폴란이 쓴 '요리를 욕망하다'는 다양한 요리의 세계를 담고 있다.

저자는 요리가 인류의 매우 흥미롭고 가치 있는 일 중 하나라는 전제 아래 요리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한다.

책은 크게 4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자연 상태의 재료가 요리라는 문화적인 형태로 변하는 과정을 다룬다. 다시 말해 고대의 4원소, 즉 불·물·공기·흙이 재료와 어떻게 결합해 요리가 되는지를 사회문화사적 관점

로 들여다본다.

1부에서는 '불'을 이용한 기초적인 초기 형태의 요리를 탐구한다. 선사시대의 요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추적한다.

2부와 3부에서는 각각 '물'과 '공기'와 결합된 요리를 소개한다. 저자는 물과 공기를 활용하는 법을 터득함으로써 음식 맛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었다고 본다.

마지막 주제는 '흙'과 관련된 부분이다. 대부분 땅속에 사는 곰팡이와 세균은 발효라는 창조적 과정을 통해 강하고 은근한 맛을 내는 최음제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코 리브르·2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어린이 책꽂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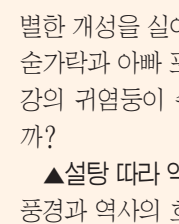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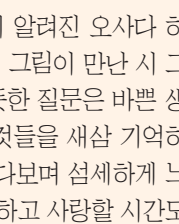
하고 자신감을 갖고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실천 방법들도 알려준다. <푸른숲주니어·1만1000원>



▲수크를 찾습니다=엄마 손가락과 아빠 포크가 아이를 찾아 부엌 마루 곳곳을 돌아다니며 개성 있는 인물들을 만나는 모험 이야기. 그동안 무심하게 사용해 왔던 부엌의 온갖 살림살이들에 저마다 특별한 개성을 실어 생생하게 되살려 냈다. 엄마 손가락과 아빠 포크를 속 빼닮은 부엌 마루 최강의 귀염둥이 수크는 과연 어디로 사라졌을까? <책읽는곰·1만1000원>



▲설랑 따라 역사 여행=설랑이 바꾼 식탁의 풍경과 역사의 흐름을 보여 주는 역사 그림책. 설랑에 대한 욕구가 사람들을 움직이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건들을 그려 내어, 역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인도와 유럽, 조선 등을 넘나들며, 고대에서 현대까지 설랑을 둘러싼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해 냈다. <너머학교·1만2000원>



▲지구촌 문화 여행=산타 클로스가 살고 있는 핀란드, 맛있는 피자를 맛볼 수 있는 이탈리아, 세계에서 가장 큰 러시아를 거머쥔 이번에는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네팔에 도착했다. 지구촌 곳곳을 책 속에 담아 나라별 문화, 음식, 유적, 인물을 한눈에 보며 세계 여행을 떠나볼 수 있도록 했다. <그린북·1만8000원>

▲첫 번째 질문=일본 교과서에 실린 명사로 널리 알려진 오사다 히로시의 시와 이세 히데코의 그림이 만난 시 그림책. 마음을 두드리는 따뜻한 질문은 바쁜 생활 속에서 그저 흘러보내던 것들을 새삼 기억하게 하고 그 속의 나를 들여다보며 섬세하게 느끼게 해 준다.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시간도 선사한다. <천개의비늘·1만2000원>

▲쓰레기 행성을 구하라!="구물거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바로 실천해요." 지구를 살리는 환경 그림책.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흔히 맞닥뜨리는 환경 문제들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려줌으로써 어린이 스스로 환경 문제를 인식

▲쓰레기 행성을 구하라!="구물거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바로 실천해요." 지구를 살리는 환경 그림책.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흔히 맞닥뜨리는 환경 문제들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려줌으로써 어린이 스스로 환경 문제를 인식

▲쓰레기 행성을 구하라!="구물거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바로 실천해요." 지구를 살리는 환경 그림책.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흔히 맞닥뜨리는 환경 문제들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려줌으로써 어린이 스스로 환경 문제를 인식